



# 시중 유통 중인 우산·양산 83%가 부적합 제품

기술표준원, 안전성조사 결과

## 개요

-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의 우산·양산이 KS(구 안전검정기준 포함)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됨
-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우산·양산의 대부분은 수입산으로 KS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무함

## 시험내용 및 결과

-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우산·양산의 불량제품 유통 및 불량제품의 폐기로 인한 환경문제 대두 등으로 안전품질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4월24일~6월5일 백화점, 할인매장, 도·소매시장 및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60개의 접우산, 장우산 및 양산을 구입하여 시험함
- 시험 결과 10개 제품은 KS 등 기준에 적합하고 50개(83%) 제품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바 살의 치수, 도금두께, 손잡이와 대의 강도, 발수도, 일광견뢰도, 끝살강도 등에서 기준미달로 나타남
- 기준미달 우산·양산을 가격대별로 보면 개당 15,000원 이상 제품의 경우 18개 제품 중 14개 제품(77.8%), 10,000원 이상~15,000원 미만의 경우 23개 제품 중 18개 제품(78.3%), 5,000원 이상~10,000원 미만 제품의 경우 19개 제품 중 18개 제품(94.7%)으로 나타나 낮은 가격대에서 부적합 제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남
- 기술표준원은 우산·양산에 대한 기존의 요구기준 외에 내풍성·유해 자외선시험 등 안전성 시험을 추가하여 실시한 바

### 〈내풍성 시험〉

- 우산의 경우 내풍성시험(육상의 경우 강풍주의보 수준의 바람세기인 14m/s하에서 45도 정방향으로 우산을 썼을 때 견디는 정도)에서 42개 제품 중 12개 제품(29%)이 살이 쉽게 휘거나 부러지거나 우산이 접히는 것으로 나타남
- 양산은 18개 제품 중 4개 제품(22%)에서 살이 쉽게 휘거나 접히거나 대가 휘는 것으로 나타남



### 〈자외선 시험〉

- 양산의 경우 가격대별로 보면 1만5천원 미만 제품은 평균 자외선차단지수(SPF)가 10, 1만5천원 이상 제품은 15로 저장도의 자외선차단력을 나타낸 바 양산이 우산보다 자외선 차단력 강도가 약함
  - 접우산의 경우 1만5천원 이상의 제품에서 평균 자외선차단지수가 10으로 저장도의 차단력을, 1만5천원 미만 제품은 20으로 중강도의 차단력을 나타낸 바 오히려 비싼 제품의 자외선 차단력이 저조한 것은 다갈색, 청색 등의 소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
  - 장우산(골프우산 포함)의 경우 1만원 이상~1만5천원 미만의 중가 제품은 평균 자외선차단지수가 10, 5천원 이상~1만원 미만의 저가 제품은 15로 저장도의 차단력을 나타내고 1만5천원 이상 제품은 20으로 중강도의 차단력을 나타낸 바 중가 제품이 저가 제품보다 자외선 차단력이 낮아진 것은 분홍색 소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
- 기준미달 우산·양산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5월4일~5월29일 기술표준원이 전국의 성인 2,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7%가 품질불량 등을 지적한 것을 봐도 이를 뒷받침함

### 향후 추진계획

- 한편, 기술표준원은 우산·양산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불량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우산·양산을 안전·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임
- 안전품질표시기준의 마련하고 오는 11월부터 안전·품질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임
- 나아가 공산품의 품질 및 위해도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신속적으로 안전관리대상 품목을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자 보호 및 제품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